



'97육류중 미생물검사요령 고시

농림부는 지난 18일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방지로 위생적 육류생산, 안전축산물의 개발화시대에 국제경쟁력제고 및 국내 축산업 발전, 국내산 육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97육류중미생물검사요령을 고시했다.

시·도 축산물위생검사업무 담당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권장기준 이상 초과 또는 양성 판정시 출하농가 특별관리,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지도할 방침이며,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시·도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조사결과 종합분석, 오염지표미생물의 권장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게된다.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며, 기간은 '97년 12월 31일 까지로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관할 도계(축)장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로 각 1천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미생물은 일반세균구, 대장균군수, 살모넬라 및 병원성 대장균 0-157:H7이다. (본문 81P참조)

동물약품영업발전협의회

동물약품 가격 현실화

동물약품영업발전협의회(회장 오우영)는 최근 인체약품업계와 화장품업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동물약품업계에서도 그동안 표기해온 권장 및 희망 소비자 가격에서 거품을 뺀 실소비자 구매가격으로 현실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현실화 조치는 동약회 소속 17개 동물약품제조사가 '96년 1월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농림부의 행정지도 아래 동물약품소비자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동물약품현실화 시기는 '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4월 1일 이전 제조한 약품은 동물약품제조업계에서 발간한 소비자 가격표에 준하여 판매하고 현실화 이후에는 소비자 표기에 준하여 판매하기로 했다. 현실화 가격 조치에 참여한 제조사는 (주)광진제약, (주)고려케미칼, 녹십자수의약품(주), (주)대성미생물, (주)대호, (주)동방, 삼양약화학(주), 삼우화학공업(주), (주)성원, (주)우진(과학축산), 이글케미칼(주), 이화약품(주), (주)제일화학, (주)중앙케미칼, 한국 화이자(주), (주)한동, (주)한풍산업 이상 17개 약품제조사이다.

(사)한국축산학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 개최



(사) 한국축산학회(회장 정길생)는 지난 21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축산시장 개방 대책의 분야별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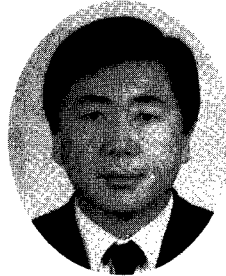
이날 총회에서는 '96년도 수지결산 및 '97년도 수지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심포지움에서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박사가 '축산물 수입자유화와 과제'에 대하여, 성진근(충북대학교)교수가 '축산개방 대응책의 재검토와 과제'를, 유제현(건국대학교)교수가 '축산연구·기술의 현황과 방향'을, 유동준(한국단미사료협회) '개방축산의 길을 자주축산의 길로'를, 김석현(전남대학교)교수가 '축산기원 자금의 활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회장에 심상무씨 선출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심상무)는 지난 18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심상무(대일축산기계) 사



◁ 심상무 회장

장이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부회장에 는 김용채(킹돈시스템), 김성호(현대산업), 박호일(제일양계기구), 송태석(동방축산기업), 김희순(세원물산), 변동하(태영기계공업)사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수지결산, 예산안의결, 금년도 행사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14일 축산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영태 현회장이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김택열 전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

협회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류재열 (축협중앙회) 부장, 김용채 (킹돈시스템) 사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특별강연으로 윤진하 (농업기계화연구소) 박사가 “축산기계 시설분야의 연구과제”를, 김용채 (킹돈시스템) 사장이 “한국축산시설 기자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또한 학술발표회에서 서옥석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사가 “점등방법이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희철 (축산 기술연구소) 연구사가 “육계사의 시설 수준별 내부환경 및 생산성 비교”를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사) 한국위생계육협회

박준규, 장덕진씨 부회장 추대

(사) 한국위생계육협회 (회장 김홍국)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부대사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97년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서형교, 신채승 전 부회장 후임에 박준규·장덕진씨를 각각 신임 부회장으로 추대하고, 오봉국 대한양계협회 고문,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김강식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장, 박근식 대한수 의사회 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농민저널

사무실이전

농민저널 (발행인 장석훈)은 사세확장에 따라 지난 15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25
진현빌딩 7층

• 전화 : (02) 3401-7501~2, 7505~6

• 팩스 : (02) 3401-7504

(사) 한국오리협회

회장에 안희복씨 선출

(사) 한국오리협회 (회장 안희복)는 지난 19일 대전 청송회관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96년도 사업결산 및 '9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과 임원선출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수입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철저히 발굴하여 집중단속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오리사육에 따른 생산비절감을 위해 정부·학계·생산농가가 연계하여 사양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장규호 회장 후임으로 안희복 (45세) 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강민수, 한상용, 변상협, 김효경 씨가 각각 부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축산경영학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김철호)는 지난 14일 건국대학교 상허기념관에서 동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하계 국제심포지움」과 관련 행사의 주제설정과 운영방안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갖고, 농업경제 5개 관련학회를 통폐합에 대해 총회의 특

정상 독립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석원 지설하 교수 정년퇴임 출판기념식 거행



석원 지설하 교수(충남대학교 축산학과)가 2월 28일부로 정년퇴임을 맞이함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계인사 및 동문, 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봉정된 책자는 가축사양학으로 전문학교 및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되었다.

지설하 교수는 지난 '77년에 농진청 고품지 시험장 장장과 축산시험장 장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79년과 '84년에는 두차례에 걸쳐 농수산부 축산국장을 역임하는 등 축산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한국가축번식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개최

한국가축번식학회(회장 김창근)는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창립 20주년기

념 국제심포지움과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총회에거 지난해 추진사업 경과 및 수입 결산보고에 이어 올 수지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학회운영과 논문 발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사)인공수정사협회

회장 안장호씨 당선

(사)인공수정사협회(회장 안장호)는 지난 2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지부의 안장호씨가 새 회장에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지용주(충북 청주)씨가 당선되었다.

'96년도 수지결산과 '97년도 수지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농림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험사업 추진

농림부는 지난 15일 음식물찌꺼기를 돼지와 닭 등 가축의 사료로 만들어 축산농가에 공급키 위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험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농림부가 추진키로 한 음식물찌꺼기 활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료로 만들어 공급키 위한 시험사업에 시험사업에 모두 3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험사업과 함께 퇴비화 사업도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때 적용하는 비료 공정규격을 염분농도기준으로 개정키로 했다.